2014. 05. 20

'EBS-수능 연계 70%' 정책으로 인한 교육현장 영향 평가 토론회

▌토론회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EBS-수능 연계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2014. 5. 20. (화) 오후 7시

▮ 머리말

‘EBS-수능 연계 70%’ 정책으로 인한 교육현장 실태 및 개선 대책을 제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5월 20일(화) 저녁 7시, ‘EBS-수능 연계 70%’ 정책으로 인한 교육현장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갖습니다.

2004년 수능 강의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방송교육공사(이하 EBS)는 사교육경감, 지역 간 학력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MOU를 체결하고 EBS 연계율 70%를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EBS 교재에 대한 연계 체감율은 떨어지고 난이도는 어렵다는 여론이 확대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시 2011년 2월 ‘수능·EBS 연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EBS 강의와 교재의 내용을 지나치게 변형하지 않고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으로 나오도록 난이도를 조정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2012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70% 연계비율이 지켜져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기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EBS-수능 연계 70%’ 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간과되어온 것입니다.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EBS 문제집을 풀어주는 획일적인 모습으로 변하였고, 국영수 교재에 있어서는 연계 교재수가 너**

무 많고, 난도가 높은 교재가 많으며, 발행시기가 너무 늦어 수험생들이 소화하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과의 경우, 3학년 때 EBS 교재를 풀기 위하여 2학년 때까지 선행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간과되어온 'EBS-수능 연계 70%' 정책으로 인한 교육현장 실태 파악 및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본 단체 구본창 연구원은 'EBS-수능 연계 70%' 정책의 변화 과정과 연계 교재 수, 관련한 교사들의 설문조사와 우리의 대안을 발제하며,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는 EBS 수학 교재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논찬으로는 신삼수 EBS 학교교육기획부 부장이 EBS의 입장에서 연계 정책의 장점을, 이동흔 전국수학교사모임 회장이면서 숭문고 교사가 수학교사, 권희정 홍진고 교사가 영어교사의 입장에서 교육현장의 'EBS-수능 연계 70%'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 5.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목차

발 제

■ 제1발제: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1
"수능 EBS 70% 연계, 이대로 좋은가"

■ 제2발제: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21
"EBS 수능 수학 연계교재 분석"

논 찬

■ 제1논찬: 신삼수 (EBS 학교교육기획부 부장) ·····33
"EBS-수능 연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논찬"

■ 제2논찬: 이동흔 (전국수학교사모임 회장, 숭문고 교사) ·····35
"EBS-수능 연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논찬"

■ 제3논찬: 권희정 (경기 군포 흥진고 교사) ·····37
"EBS-수능 연계 70%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 대한 논찬(영어 영역 중심)"

■ 제1발제

EBS-수능 연계 70%, 이대로 좋은가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1. 서론

2004년 수능 강의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방송교육공사(이하 EBS)는 사교육경감, 지역 간 학력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MOU를 체결하고 EBS 연계율 70%를 고시하며 본격적인 수능 연계 정책 의사를 밝혔다. 물론 수능 강의 서비스를 실시한 2004년부터 2009년까지도 EBS 수능 강의와 교재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매년 30% 안팎에 그쳤고 기대에 못 미치는 연계로 비판을 받아왔다.(2013, 김혜란) 연계율을 확정한 이후에 실시된 2011학년도 수능 시험에서도 EBS 교재에 대한 연계 체감율은 떨어지고 난이도는 어렵다는 여론이 확대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2월 'EBS-수능 연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EBS 강의와 교재의 내용을 지나치게 변형하지 않고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으로 나오도록 난이도를 조정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2012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70% 연계 비율이 지켜지고 쉬운 수능의 취지가 지켜져 수능시험 문제를 EBS 교재와 연계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착기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몇%를 연계하느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EBS 교재의 문제 수준이 고교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맞는지와 문제의 질이 교육과정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연계 비율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초 사교육 경감을 목표로 시작된 정책이지만 사교육 경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관련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재기되었고, EBS

수능 강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EBS 수능 교재가 교과서의 대체재가 되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과다한 강의와 교재를 소화하기 위해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재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비중 있게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단체에서도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EBS 교재 70% 연계 정책이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교재 분량 축소와 출시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본 발제 또한 앞서 제기한 문제들의 연장선상에서 EBS 교재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수험생들이 느낄 학습 부담감과 고교 교육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면을 가시화해 제도 개선의 발판을 모색하려는데 있다.

2. EBS 연계 현황

우선 EBS-수능 연계를 실시한 2011학년도부터 연계 교재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2011학년도에 비해 2012학년도는 교재 수가 감소했다. 2011학년도 수능에 대한 체감 여론이 좋지 않아 교육부는 EBS-수능 연계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 교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EBS-수능 연계 점검 · 분석 T/F' 팀을 구성해 ▲EBS 교재와 강의의 수가 많고, ▲수험생들의 심층학습을 지원하지 못하며, ▲교재 수가 많아 학습부담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연계교재 시리즈를 3종에서 2종으로 줄였다.[1] 즉 문과학생은 40권, 이과학생은 50권의 교재를 영역별로 준비한다는 것이 무리수이며, '학교 수업의 보충자료'로서 활용하기에도 양이 많다는 것을 EBS 수능 연계 정책의 주체들이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연계 교재 수는 112권으로 동일하나 2014학년도에는 108권으로 준다. 이는 언 · 수 · 외에서 국 · 수 · 영으로 영역 명칭이 바뀌면서 6권이었던 언어 교재가 국어 5권으로 준 것과 사회탐구 영역이 11교과에서 10교과로 줄고 직업탐구영역이 17교과에서 10교과로 줄어드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과목별 연계교재의 수는 교과

1)2011학년도 수능시험에서 EBS 연계 70% 정책을 실시해 수험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예고했으며, 시험 당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능 출제 방향 발표에서도 연계율을 지키고 지난해 수준의 난이도를 지켰다고 했지만 여론을 통해 나타난 수험생들의 체감은 정반대였다. 이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2011년 2월 16일 보도자료에서 기존 [수능특강 · 10주완성 · 파이널] 3단계 연계를 실시해 연계교재 수를 줄일 것을 발표한다.

당 2권으로 변화가 없다. 국어 교재가 1권 준 것도 [비문학 · 운문문학 · 산문문학] 3권이었던 언어영역 인터넷수능 시리즈가 국어 영역으로 바뀌면서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문학> 2권으로 바뀌면서 생긴 현상이다. 즉 연계 교재 자체의 변화라기보다는 수능 시험 체제의 변화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2015학년도는 2014학년도에 A/B형으로 실시되었던 영어 시험이 통합되면서 6권 준 102권으로 연계교재를 예시했다. 이상의 변화 추이를 정리해보면 2011학년도 3단계 정책에서 2012학년도 2단계 정책으로 바꾼 이후 시험 체제의 변화로 인해 교재 수가 줄기는 했지만 영역별 · 교과별 연계 교재의 수는 [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1] EBS 연계 교재 변화 추이

구분	영역별 연계교재 수								
	언어	수리(택1)		외국어	사탐 '11(11/4), 11/3	과탐 '11(8/4) 8/3	직탐 17/3	제2외국어/한문 8/1	계
		가	나						
2011	10	17	7	11	33	24	17	8	127
2012	6	8	4	6	22	16	34	16	112
2013	6	8	4	6	22	16	34	16	112

연도	영역별 연계교재 수										
	국어 (1)		수학 (택1)		영어 (택1, 2015 합)		사탐 (10/2)	과탐 (8/2)	직탐 (10/1)	제2외국어/한문 (9/1)	계
	A	B	A	B	A	B					
2014	5	5	4	8	6	6	20	16	20	18	108
2015	5	5	4	8	6		20	16	20	18	102

[표2] 영역별·선택 과목별 연계 교재 수

	언(국)	수리가 (수B)	수리나 (수A)	외국어 (영)	사탐	과탐	직탐	제2외국어/한문	계	증감
2012	6	8	4	6	2	2	1	1	30	-
2013	6	8	4	6	2	2	1	1	30	-
2014	5	8	4	6	2	2	1	1	29	▼1
2015	5	8	4	6	2	2	1	1	29	-

3. 수능 EBS 연계 정책으로 인한 문제

가. 수험생의 학습 부담 증가

그렇다면 실재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몇 권의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풀어왔으며 풀어야 하는지를 [표3]에서 살펴보았다. 연계 정책 첫 해로 큰 혼선을 빚었던 2011학년도에 문과학생은 40권, 이과학생은 50권의 교재를 공부해야 했고 이것이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인식하에 2012 · 2013학년도에는 문과 22권, 이과 26권으로 줄어든다. 2014학년도부터는 3과목 선택이던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이 2과목 선택으로 줄어 문과학생은 19권을 이과학생은 23권의 연계 교재를 풀어야 했다.

[표3] 일반고 문·이과 학생 학습 연계 교재

구분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사탐	과탐	계
2011	인문계열	10	-	7	11	12	-	40
	자연계열	10	17	-	11	-	12	50
2012	인문계열	6	-	4	6	6	-	22
	자연계열	6	8	-	6	-	6	26
2013	인문계열	6	-	4	6	6	-	22
	자연계열	6	8	-	6	-	6	26

구분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계
2014	인문계열	5	4	6	4	-	19
	자연계열	5	8	6	-	4	23
2015	인문계열	5	4	6	4	-	19
	자연계열	5	8	6	-	4	23

여기에 교재를 학습하기 위해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의 양도 [표4]에서 보는 것과 같이 10,000편이 넘는 인터넷 강의를 선별하여 시청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된다.

[표4] 영역별 수능 강의 개설 현황(단위: 편)

구분	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	과탐	제2외	직탐	계
2010	1,976	4,225	3,310	4,476	4,637	537	821	**19,982**
2011	1,503	3,864	2,267	5,816	4,133	484	870	**18,937**
2012	1,173	2,417	1,347	4,081	2,583	454	897	**12,952**

또한 [표3]에서 밝힌 것처럼 20여 권의 교재를 학습하도록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얼마나 될지를 알기 위해 [표5]를 통해 연계 교재와 발행 시기를 살펴보았다. 국어 B, 수학 A, 영어, 사탐을 준비하는 문과 학생의 경우 1월에 10권의 교재에 대한 학습을 시작해 2월까지 마치고 3월에 4권의 교재에 대한 학습과 앞선 교재에 대한 복습을, 5월에 2권의 교재를 다시 시작하고 앞선 교재에 대한 복습을, 6월에 나머지 8권에 대한 학습과 앞선 교재에 대한 복습을 수능 시험 전까지 5개월 간 마쳐야 한다. 이과생의 경우에는 여기에 1월에 수학교재 2권과 6월에 수학 교재 2권을 더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된다. 즉 수능 특강이 출시되는 1월부터 수능시험이 있는 11월까지 10개월 동안 **매달 문과 학생은 평균 1.9권의 교재를, 이과 학생은 2.3권의 교재**를 완전학습 할 때 — EBS-수능 연계율 70에 대한 성취로 볼 수 있는 —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업 성취율의 70%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이 평균 1학기 당 8교과에 창의적 체험활동 1교과를 주당 34단위 이수한다. 즉 매일 7교시의 학교 수업을 수행하고 보충 교재로 제공되는 EBS 교재 19 · 23권을 10개월 만에 완전학습 하라는 지시사항이 현행 수능 · EBS 연계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렇게 공부하면 70점 맞는다니 나머지 30점을 더 성취하려면 얼마나 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 할 지 명약관화이다.

[표5] 2015학년도 수능시험 EBS 연계교재 목록 및 발행 시기

영 역		교 재 명	출시시기
국어	A형	1. <수능특강> 국어 A형	14. 01
		2. <인터넷수능>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4. 03
		3. <인터넷수능> 문학 A형	
		4. <EBS N제> 국어 270제 A형	14. 05
		5. <수능완성> 국어 A형	14. 06
	B형	1. <수능특강> 국어 B형	14. 01
		2. <인터넷수능>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14. 03
		3. <인터넷수능> 문학 B형	

영 역		교 재 명	출시시기
		4. <EBS N제> 국어 270제 B형	14. 05
		5. <수능완성> 국어 B형	14. 06
수학	A형	1. <수능특강> 수학Ⅰ A형	14. 01
		2. <수능특강> 미적분과 통계 기본	
		3. <수능완성> 수학Ⅰ A형	14. 06
		4. <수능완성> 미적분과 통계 기본	
	B형	1. <수능특강> 수학Ⅰ B형	14. 01
		2. <수능특강> 수학Ⅱ	
		3. <수능특강> 적분과 통계	
		4. <수능특강> 기하와 벡터	
		5. <수능완성> 수학Ⅰ B형	14. 06
		6. <수능완성> 수학Ⅱ	
		7. <수능완성> 적분과 통계	
		8. <수능완성> 기하와 벡터	
영어		1. <고교듣기> 고교영어듣기	14. 01
		2. <수능특강> 영어	
		3. <인터넷수능> 영어독해연습1-종합편	14. 03
		4. <인터넷수능> 영어독해연습2-틀리기 쉬운 유형편	
		5. <EBS N제> 영어 280제	14. 05
		6. <수능완성> 영어	14. 06
사회탐구		**과목별 2권** 1. <수능특강>	**14. 01**
		2. <수능완성>	**14. 06**
과학탐구		**과목별 2권** 1. <수능특강>	**14. 01**
		2. <수능완성>	**14. 06**

[표6] 고3 수험 기간 월별 공부해야 할 EBS 수능 연계 교재

▶ **인문계**

월 / 영역	1	2	3	4	5	6	7	8	9	10	11
국어	1		2		1	1					수능 시험
수학	2					2					
영어	2		2		1	1					
사탐	2					2					
계	7		4		2	6					

▶ **자연계**

월 / 영역	1	2	3	4	5	6	7	8	9	10	11
국어	1		2		1	1					수능 시험
수학	4					4					
영어	2		2		1	1					
과탐	2					2					
계	9		4		2	8					

[표7]은 2014학년도 수능시험 결과를 가지고 영역별 원점수 70을 획득한 학생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원점수 평균 70점을 맞은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이 [표8]의 정시 배치표 기준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인문계 지원 학생의 경우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대부분 국어B, 수학A, 영어B, 사탐 2과목을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해서 70점을 맞았을 때 표준점수는 443점이다. 자연계 지원 학생이라면 대개 국어A, 수학B, 영어B, 과탐 2과목을 선택했을 것이고 원점수의 평균이 70점이라면 표준점수는 446점이 된다. 진학사가 제공한 대학입시 정시 배치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점수를 맞은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인문계의 경우 서울·경인 지역 소재 대학 지원이 불가능하고 지방 사립대학교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자연계의 경우도 서울 소재 대학 지원은 불가능하고 경인 지역 일부 대학과 지방 사립대를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심각한 대학 서열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상 70점을 맞아 지방사립대 합격을 목표로 고3 시기를 보내는 학생의 비율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의 4~50%에 해당하는 숫자가 따라서 수험생들은 성적향상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EBS 연계 교재가 아닌 영역별 EBS 수능 교재나 타사 수능 수험서 및 사교육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는 형국이다.

[표7] 수능시험 영역별 70점의 성취도

▶ **국수영**

국어A				국어B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70	102	48	5	70	100	43	5
수학A				수학B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70	120	78	3	70	114	71	4
영어A				영어B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70	120	78	3	70	114	71	4

▶ **사회탐구(평균 표준점수 54.5)**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35	54	61	4	35	56	67	4
한국사				한국 지리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35	54	58	5	35	55	65	4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35	54	58	5	35	54	58	5
세계사				법과 정치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35	55	63	4	35	55	64	4
경제				사회 · 문화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35	53	55	5	35	55	63	4

▶ **과학탐구(평균 표준점수 56.9)**

물리 I				화학 I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35	57	70	4	35	57	70	4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35	58	75	4	35	58	76	4
물리 II				화학 II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35	54	56	5	35	59	77	3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35	56	66	4	35	56	66	4

원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http://suneung.re.kr/contents.do?contentsNo=37&menuNo=241)

[표8] 대학입시의 '배치도' 구성

▶ **인문계**

수능 표준 점수	서울 지역	경인 지역	지방
550	서울대		
540	서강대 연세대 고려대		
535	성균관대 서울교대 한양대		
530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경희대		
520	동국대 교원대 건국대 숙명여대	인하대	한동대
515	중앙대	아주대	
510	숭실대 홍익대 국민대	단국대	
505	세종대 광운대 서울여대	경희대(캠) 인천대 한양대(캠) 가천대 가톨릭대	부산대
500	명지대 성신여대 경기대 상명대		금강대 경북대
495	동덕여대 한성대	한국외대(캠)	연세대(캠)
490		경기대(캠) 용인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전남대 부경대 고려대(캠)
485	삼육대		강원대
480	서경대 성공회대	수원대	충북대 단국대(캠)
475		강남대 성결대	창원대 건국대(캠) 경상대 순천향대
470	덕성여대		공주대 영남대 전북대 동아대
465		한신대 을지대(캠)	한림대 제주대
460		서울신대 안양대 협성대	건양대 한국교통대 울산대 인제대 상명대(캠)
455	그리스도대	대진대 한세대	한남대 한밭대 청주대 군산대
450			경성대 원광대 한서대 계명대 순천대 호서대
445		평택대 신경대	목포대 대구대 서남대남원) 동국대(캠) 우석대 초당대 한려대
440			경남대 강릉원주대 부산외대 우송대 남서울대 백석대 안동대
435			전주대 중부대 한국국제대 상지대 한라대 중원대 경운대 나사렛대 선문대 강원대(캠) 목원대
430			대전대 서남대(아산) 조선대 영동대 동의대 세명대 신라대
425			경동대 관동대
420		한북대	광주여대 청운대 경주대 동신대
415			위덕대 한일장신대 대구가톨릭대 서원대 가야대 동서대
410			호남대 고신대 동양대 호원대 동명대 송원대 경남과기대
405			경일대 배재대 한중대 제주국제대
400		루터대	광주대 세한대
395			영산대 영산대(캠)
390			김천대
370			대구한의대

주: 경영계열/사범계열/종교학과 관련 제외하고 각 학과 예상점수의 중간값 산출

▶ **자연계**

수능 표준 점수	서울 지역	경인 지역	지방
530	서울대		KAIST* POSTECH*
525			광주과학기술원
520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515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UNIST
510	중앙대 홍익대 한국교원대		한동대
505	경희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한국항공대	
500	건국대 동국대	아주대	
495	성신여대 숭실대		
490	국민대	인하대 한양대(캠) 단국대	
485	세종대 서울과학기술대 동덕여대 광운대	가천대 경희대(캠) 가톨릭대	
480	서울여대 덕성여대		한국기술교대 부산대
475	상명대		
470	한성대 명지대	인천대	
465		한국외대(캠) 경기대	한국해양대 고려대(캠) 단국대(캠) 전남대 경북대
460	삼육대 서경대	수원대 용인대	건국대(캠) 연세대(캠) 목포해양대
455	성공회대	한국산업기술대	부경대 금오공대 충남대 강원대
450		을지대(캠) 강남대 한신대	홍익대(캠) 순천향대
445		성결대 협성대	한국교통대 한림대 홍익대(캠) 충북대
440			동아대 한서대 백석대 건양대 한밭대 인제대 울산대
435		한경대 대진대 안양대	공주대 창원대 영남대
430		평택대	경상대 상명대(캠) 전북대
425			계명대 청주대 군산대 우송대 대전대 호서대
420			경남대 원광대 제주대 남서울대
415			동양대 한북대 경성대 한남대 대구대 동국대(캠) 한라대
410			동의대 목포대 상지대 순천대 대구가톨릭대 전주대 세명대 광주여대 목원대 안동대 조선대
405			강릉원주대 강원대(캠) 고신대 선문대 중원대 호원대 우석대 서남대(아산) 김천대 대구한의대 중부대 나사렛대
400			강릉원주대(캠) 서원대 초당대 배재대 청운대 경주대 동신대 송원대 관동대 동서대
395			남부대 동명대 영동대 한국국제대 경북대(캠)
390			위덕대 경남과기대 부산가톨릭대 신라대 경동대 영산대 서남대(남원) 광주대 경일대 한국국제대
385			전남대(캠) 부산외대 호남대 한중대
380			제주국제대

주: 의약학·보건계열/사범계열 제외하고 각 학과 예상점수의 중간값 산출

[표9]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발행된 EBS 수능 교재표이다. 연계 교재 외에도 수험생들이 학습 부담을 유발시키는 교재의 수가 상당하다. 유형별로 학습해야 할 교재의 수효를 헤아려 보면 [표10]에서 보는 것처럼 인문계 수험생은 37권, 자연계 수험생은 41권을 수능시험 전까지 학습해야 한다. 여기에 연계 교재를 포함한다면 인문계 56권, 자연계 64권이 된다.

[표9] EBS 연간교재 발행계획(13.12.11 업데이트)

대상	시리즈	교재목록	발행	신규
고3	수능 기출플러스	**국어** : 문학, 독서, 문법, 화법과 작문 **수학** :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학Ⅱ&적분과 통계&기하와 벡터 **영어** : 영어독해편(상), 영어독해편(하), 영어듣기편 **사탐** :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한국사, 법과 정치, 사회문화 **과탐**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13.12	신규/ 개정
	수능특강(☆)	**국어** : 국어-A형, 국어-B형 **수학** : 수학Ⅰ-A, 수학Ⅰ-B형, 수학Ⅱ, 미적분과 통계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 영어 **사탐** :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탐**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14.01	신규
	고교 듣기	고교 영어듣기	14.01	신규
	인터넷수능	**국어** : 문학-A형, 문학-B형,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A형(☆) **영어** : 영어독해연습1 - 종합편(☆) 영어독해연습2 - 틀리기 쉬운 유형편(☆)	14.03	신규
		국어 : 문법 다지기 - A형, 문법 다지기 - B형 **영어** : 영어어휘특강, 영문법특강	14.03	신규/ 개정
	EBS N제	**국어** : 국어270제-A형, 국어 270제-B형(☆) **영어** : 영어 280제(☆)	14.05	신규
		수학 : 수학 240제-A형, 수학 240제-B형 **사탐** : 생활과 윤리 300제, 윤리와 사상 300제, 한국지리 300제, 세계지리 300제, 한국사 300제, 동아시아사 300제, 세계사 300제, 법과 정치 300제, 경제 300제, 사회문화 300제	14.05	신규/ 개정

		과탐 : 물리 Ⅰ300제, 화학Ⅰ 300제, 생명과학Ⅰ 300제, 지구과학Ⅰ 300제, 물리Ⅱ 300제, 화학Ⅱ 300제, 생명과학Ⅱ 300제, 지구과학Ⅱ 300제		
	수능완성(☆)	**국어** : 국어 - A형, 국어 - B형 **수학** : 수학Ⅱ-A형, 수학Ⅱ-B형, 미적분과 통계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 영어 **사탐** :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탐**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제2외국어&한문** : 일본어, 중국어, 한문	14.06	신규/개정
	703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국어** : 국어-A형, 국어-B형 **수학** : 수학-A형, 수학-B형 **영어** : 영어 **사탐** :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탐**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14.08	개정
	EBS 만점 마무리 봉투형 모의고사	**국어** : 국어-A형, 국어-B형 **수학** : 수학-A형, 수학-B형 **영어** : 영어	14.09	신규
고2	수능스타트	**국어** : 국어 **수학** :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과 통계,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 영어	14.07	개정/연속판매
	수능특강Light	**영어** : 영어독해, 영어듣기	14.08	신규
	수능길잡이	**국어** : 문학, 독서 **수학** :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과 통계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 영어독해 유형편, 영어독해 구문편	13.12	연속판매

☆ 는 수능 연계 교재

[표10] 고교생이 공부해야 할 EBS 수능 비연계 교재

▶ **인문계**

구분		국어	수학	영어	사탐	소계
고3	수능기출플러스	4	2	2	2	10
	고교듣기			1		1
	인터넷수능	1		2		3

	EBS N제		1		2	3
	703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1	1	1	2	5
	EBS 만점 마무리 봉투형 모의고사	1	1	1		8
	소계	7	5	7	6	25
고2	수능스타트	1	2	1		4
	수능특강 Light			2		2
	수능길잡이	2	2	2		6
	소계	3	4	5		12
합계		10	9	12	6	37

▶ **자연계**

구분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소계
고3	수능기출플러스	4	2	2	2	10
	고교듣기			1		1
	인터넷수능	1		2		2
	EBS N제		1		2	3
	703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1	1	1	2	5
	EBS 만점 마무리 봉투형 모의고사	1	1	1		3
	소계	7	5	7	6	25
고2	수능스타트	1	4	1		6
	수능특강 Light			2		2
	수능길잡이	2	4	2		8
	소계	3	8	5		16
합계		10	13	12	6	41

이와 같이 방대한 양의 EBS 교재로 입시 준비를 하고서도 부담감이 해소되지 않은 수험생은 사교육 기관을 찾거나 타 출판사 교재를 손에 쥐고 불철주야 학습에 매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EBS 수능 영어 강의와 교재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득점을 위해 사교육의 필요성을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23%,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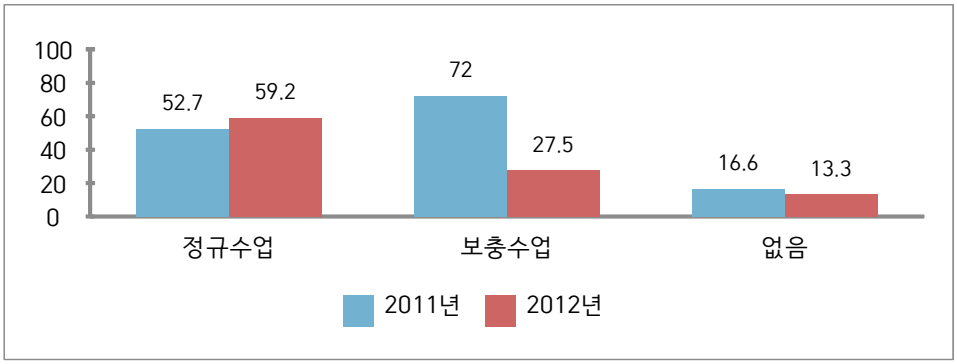
로 그렇다' 가 34.4%였다.(김혜란, 2013) 2012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에서 발표한 자료는 수능연계 정책 실시 후 사교육 시간에 변화가 없거나 증가했다는 비율이 74.8%, EBS 수능강의를 이용하면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67.5%라고 밝혔다. (2012, 채창균) 이를 보면 약 70%의 학생이 수능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EBS 수능 강의와 교재, EBS를 제외한 타사 교재와 사교육을 통한 학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수능 EBS 연계 70% 정책을 실시해도 약 70%의 학생들은 학습 부담감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수험생들에게 고3 시기 중 6개월 간 50여 권의 교재를 공부하라고 제공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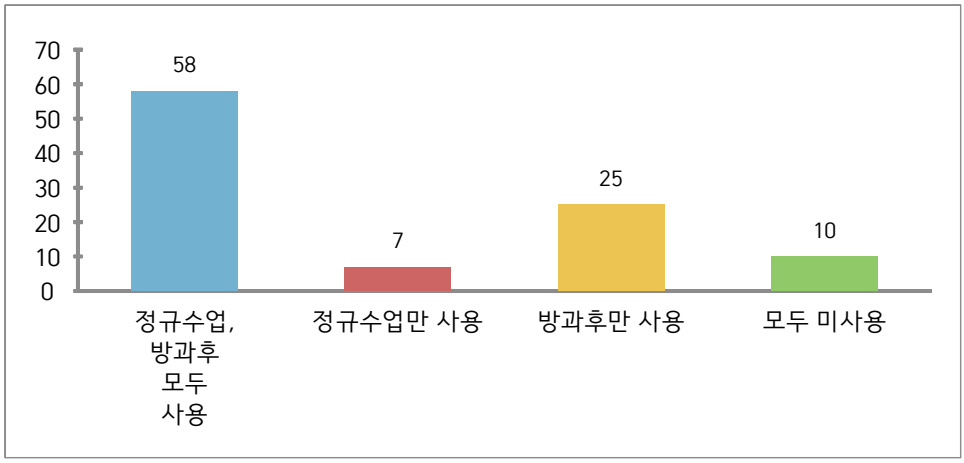
수능시험 출제를 주관해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EBS-수능 연계의 의미를 "충실한 학교공부 바탕 위에 EBS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수능을 대비하는 학습법으로 보다 높은 점수를 얻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011, 박진동) 다시 말해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능 · EBS 연계 정착' 이 목표라는 것이다.(2011,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하지만 평가원이 이같은 주장을 한지 불과 1년 만에 현실은 주객이 전도되어 EBS 교재가 공교육의 보완재가 아닌 대체제가 돼버렸다.

2012년 직능원이 일반고, 자율고, 외국어고 10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림1]에 의하면 약 60%의 학교에서 EBS 수능 교재를 정규수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보충수업에도 27.5%가 사용하고 있다. 학교수업에서 EBS 수능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은 불과 13.3% 밖에 되지 않는다. 거의 90%에 가까운 학교가 EBS 수능교재로 학교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우리 단체가 고3 수학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그림2]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왜 EBS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가를 묻는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 학생 484명 302명(62.4)%이 '계획적으로 끝까지 수강하기가 힘들다' 로 답했다. (2011. 이정림)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EBS 연계 교재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70%가 출제되는 교재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 수능시험을 치르는 비율이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림1] 수능교재의 학교수업 활용(단위 %)



[그림2] 고3 수업에서 EBS 수학 교재 활용(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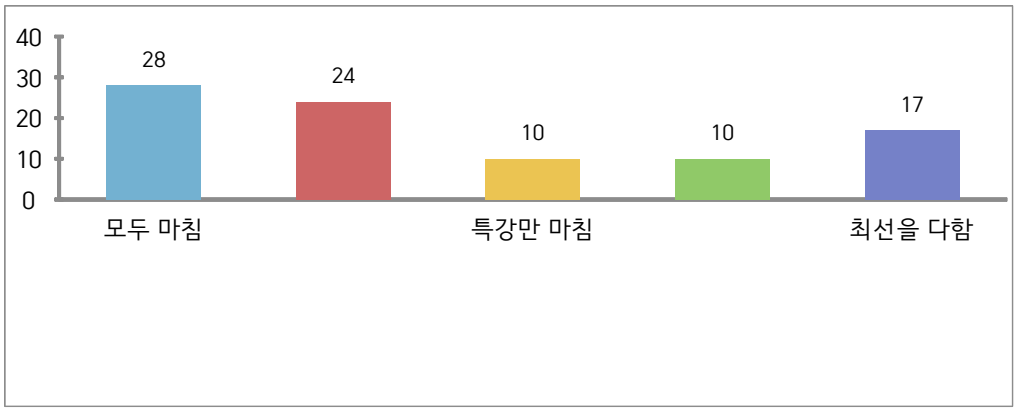


학교 교실은 국가교육과정에 의해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면 편성된 교육과정을 지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EBS 연계 교재 관련 수능 인터넷 강의 편수를 살펴보면 수학의 경우 교재 당 50회의 강의 편성이 되어 있다. 일반고의 경우 인문계열 학생이 수학을 4단위 자연계열 학생이 7단위를 이수한다. EBS 인터넷 강의 기준으로 학교에서의 수업 시수를 산정해보면 인문계열은 200시간, 자연계열은 400시간이 필요한데 이는 각각 50주, 57주의 수업 분량이다. 그간의 관행에 의해 학교에서 고3 수업을 2월부터 시작한다 해도 9개월, 37주 동안 인문계 4권, 자연계 8권의 EBS 연계 교재를 도저히 풀 수 없다. 이 진도를 맞추려면 고2 때까지 모든 수학 교과과정을 마치고 정규수업에 방과후수업까지 실시해가며 연계 교재 풀이에만 매진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이다.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봐도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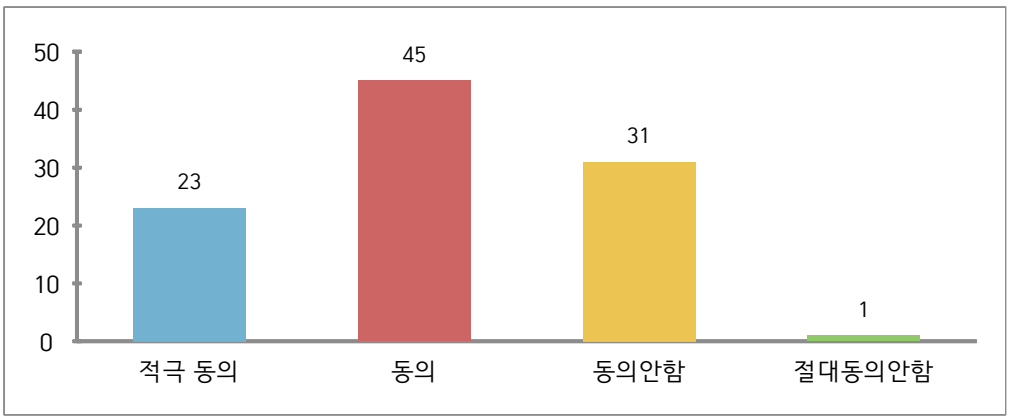
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을 [그림3[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능 시험 전까지 EBS 연계 교재 진도를 모두 마치는 학교가 28%, <수능특강>은 마치지만 6월에 발행되는 <수능완성>은 못 마친다가 24%, <수능특강>만 마친다가 15%, <수능특강>도 못 마친다 14%, 진도에 신경 쓰지 않고 하는 데까지만 한다가 17%였다. 11%의 미응답자를 제외하고도 61%의 교사들이 수능 연계 교재 진도를 마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68%의 교사들이 EBS 연계로 교육과정 운영이 힘듦을 토로하고 있다.

[그림3] 수능 전까지 EBS 수능 교재 8권(수능특강4, 수능완성4)을 마치는가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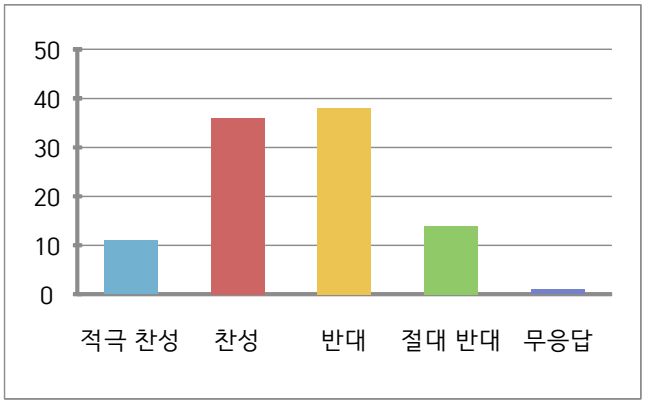
[그림4] EBS 70% 연계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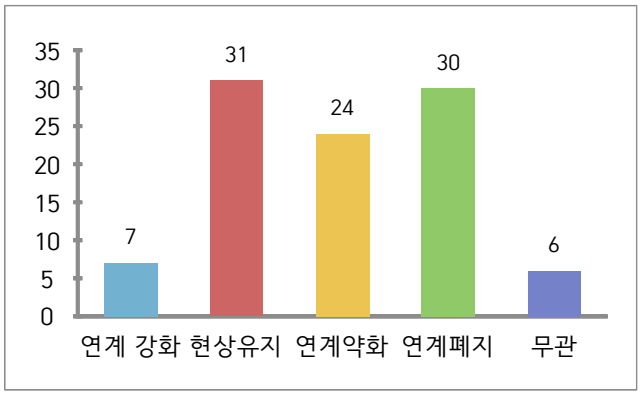
2) 2013년 7월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고교수학 개선을 위해 수학 교사들에게 수능 EBS 연계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응답자 수는 146명의 현직 수학 교사이다. 그림3~6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값이다.

수능 EBS 연계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도 과반수 이상인 52%의 교사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그림5] 그리고 향후 EBS 연계의 방향에 대한 설문에는 '강화해야 한다'가 7%, '현상을 유지한다'가 31%, '연계 퍼센트를 낮춰야 한다'가 24%, '연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가 30%로 나타났다. 연계 비율을 낮추거나 연계 폐지에 대한 의견이 54%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38%의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EBS-수능 연계 정책과 관련된 수학 교사들의 의견은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이라는 답보다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높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림5] EBS 연계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



[그림6] EBS 연계 정책의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수능 EBS 연계 정책 시행 후 EBS 수능 교재가 교과서를 대체하고 고3 교실을 EBS 강의장으로, 고3 교사를 EBS 강사로 만드는 것이 고교 교육의 자화상이다.

4. 결론

EBS-수능 연계가 고교 교육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정착되려면 교재의 양과 질이 수험생에게 적절한가의 문제와 교사들이 교과서 위주로 수업하며 보충 교재로 학생들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도와주기에 합당한가의 문제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 오는 9월부터는 '선행교육 규제법'이 시행된다. 각 고교는 학교 교육과정편성에 의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지키면서 보충재로서의 EBS 교재 활용을 병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하라고 하니 곳곳에서 관련된 문제제기와 비판이 쇄도한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인 것이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지난 4월 15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관련 후속 토론회를 개최해 EBS-수능 연계 70% 가 고교교육과정의 파행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대안]

○ 수학의 경우, **EBS 연계 교재를 2종류에서 1종류로 줄이고, 이 책 또한 2학년 때 제작하여 2년 동안 볼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함.
○ 국어의 경우도 현재 4종류 5권, 영어의 경우도 5종류 6권에 달하므로 역시 종류와 권수를 줄이고, 2학년 때 제작하는 개선이 필요 함.

평가의 주체들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EBS-수능 연계 정착'이라는 그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선 의지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밝힌 본 단체의 대안 외에도 다음과 네 가지의 문제들에 대한 재고 후 개선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며 발제를 마친다.

○ 70% 연계는 적정한 것인가?
○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교재 내용을 구성했으며 교육과정 내에서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은 온당한가?
○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개념과 원리를 EBS 교재를 통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연습' 할 수 있도록 양과 질이 합리적인가?
○ 교사들의 가르치는 내용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 참고자료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3). EBS 교재와 수능시험 70% 연계 방안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12). 평가원 · EBS 내년수능-EBS 연계 방향 협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3).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11. 2).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능 · EBS 연계 정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3).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3).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3).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참고문헌〉

김혜란. (2013). EBS 수능 외국어 영역 강의 및 교재에 대한 만족도와 인지 전략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진동. (2011). EBS 연계를 통해 쉬운 수능으로. 교육광장, Vol, 39
박혜숙. (2011). 정책 안정화에 총력. 교육광장, Vol, 39
박인우 · 김명랑(2013)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교육매체활용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효과분석. 제3회 서울교육종단연구 정택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4) 공기업, 대기업 등 채용 시장에서 학벌 차별 관행은 달라지고 있나. 토론회 자료집
송경원. (2010). EBS 교재와 수능의 '70% 연계', 제대로 될까?
이정림. (2011). EBS 수리영역 수능강의 시청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채창균. (2012). 2012년 EBS 수능강의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 (2012) 2012년 제2차 수능강의만족도 조사
한순복. (2011).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를 위한 EBS 수능 교재
용산고등학교. (2014). 학교교육계획서

제2발제

EBS수능 수학 연계교재 분석

최수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1. 수능 수학 연계 교재의 구성

수학에서 수능 연계 교재의 이름은 현재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두 종류다.

1) 수능특강

<수능특강> 교재는 A형에서 두 과목, B형에서 4과목이며 구체적인 과목과 교재명은 다음과 같다.

수능유형	과 목	교재명
A형	수학 I	EBS 수능특강 수학영역 수학 I A형
	미적분과 통계 기본	EBS 수능특강 수학영역 미적분과 통계 기본
B형	수학 I	EBS 수능특강 수학영역 수학 I B형
	수학II	EBS 수능특강 수학영역 수학II
	적분과 통계	EBS 수능특강 수학영역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EBS 수능특강 수학영역 기하와 벡터

수학 I 은 A형과 B형의 공통 과목인데 교재명이 '수학 I A형', '수학 I B형'으로 구분된 것은 수준에 따라 A형과 B형에서 다른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어와 영어 과목이 갑자기 A형과 B형으로 나뉘면서 '쉬운 수능과 어려운 수능'으로 개념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수학만 '가형과 나형'의 두 가지 유형이었을 때는 공통 과목의 문항이 거의 전부가 중복되었는데 'A형과 B형'으로 넘어오면서 같은 과목이라도 A형은 쉬운 수준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수학 I 은 수준에 따라 A형과 B형에서 다른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

2) 수능완성

<수능완성> 교재도 A형에서 두 과목, B형에서 4과목이며 구체적인 과목과 교재명은 다음과 같다.

수능유형	과 목	교재명	비 고
A형	수학 I	EBS 수능완성 수학영역 수학 I A형	실전편은 모의고사 6회
	미적분과 통계 기본	EBS 수능완성 수학영역 미적분과 통계 기본 유형편 실전편 A형	
B형	수학 I	EBS 수능완성 수학영역 수학 I B형	실전편은 모의고사 6회
	수학II	EBS 수능완성 수학영역 수학II 유형편 실전편 B형	
	적분과 통계	EBS 수능완성 수학영역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EBS 수능완성 수학영역 기하와 벡터	

수학 I 의 경우 <수능완성>도 <수능특강>과 마찬가지 이유로 A형과 B형을 구분하여 상당수의 문항을 별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능완성>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A형의 경우 '미적분과 통계 기본' 교재를 유형편+실전편으로 구성했고, B형의 경우 '수학II' 교재를 유형편+실전편으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두 과목의 유형편은 다른 과목의 교재와 마찬가지였지만, (수능 파이널) 실전편이 별권으로 추가·제작되었다. (수능 파이널) 실전편에는 실제 수능 시험과 똑같은 형태의 실전모의고사가 6회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수학 연계 교재 분석 내용

1) <수능완성>의 실전편의 정체를 밝혀야

제1발제의 수능·EBS 연계 교재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1학년도에 비해 2012학년도는 교재 수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2011학년도 수능 연계율에 대한 체감 여론이 좋지 않고[1], 수험생의 부담도 많아서 연계교재 시리즈를 3종에서 2종으로 줄인 결과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학은 <수능특강>과 <10주완성>과 <파이널>의 3종에서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2종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3종 중 <파이널> 교재를 연계 교재에서 제외하여 수험생들의 연계 교재 학습 부담을 줄였다고 했지만 <수능완성>에 삽입한 '실전편'은 수능모의고사 6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파이널>이 그 이름만 바꿔서 <수능 완성> 속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즉, A형에서 '미적분과 통계 기본' 과목과 B형에서 '수학Ⅱ' 과목에 붙어 있는 '실전편'은 과거 <파이널> 교재와 다름이 없다. 이것은 EBS가 교묘하게 이 교재를 A형은 미적분과 통계 기본 교재를 기형적으로 구성해서, B형은 수학Ⅱ 교재를 기형적으로 구성해서 마치 한 권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2) 문항의 난이도

제7차 교육과정부터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에서 성취기준과 성취수준[2]을 만들어 학교 현장에 보급하여 각 학교가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선택과목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맞춰서 2013년에 발행한 EBS <수능완성> 시리즈의 '기하와 벡터' 교재 절반에 대한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다. 성취수준을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상, 중, 하로 분류하였고, 기하와 벡터의 성취기준이 아닌 다른 과목의 성취기준이 섞여서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별도로 분류하였다.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밝힌 수능 연계율보다 실제로 수험생이 느낀 연계율이 상당히 낮았다는 뜻.
2) 성취수준이라는 용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사용했고, 제7차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평가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대단원	상수준 개수	중수준 개수	하수준 개수	판단불가 개수	합계	Ⓐ상수준 비율(%)	Ⓑ판단불가 비율(%)	Ⓐ+Ⓑ
일차변환과 행렬	26	33	1	22	82	31.70	26.83	58.54
이차곡선	21	15	0	46	82	25.61	56.10	81.71
합 계	47	48	1	68	164	28.66	41.46	70.12

일차변환과 행렬 단원의 경우 총 82문항 중 상수준 문항의 비율이 31.70%(26개)였으며, 다른 과목의 성취기준이 섞여 있어서 판단이 불가능한 문항의 비율이 26.83%(22개)였다. 또한 이차곡선 단원의 경우 총 82문항 중 상수준 문항의 비율이 25.61%(21개)였으며, 판단이 불가능한 문항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56.10%(46개)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준의 문항의 비율이 28.66%, 판단이 불가능한 문항의 비율이 41.46%였다.

다른 과목의 성취기준이 섞여 있다는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수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수와 연산 영역의 기본 연산은 제외하였다. 기본 연산이라는 인수분해나 일차 연립방정식의 풀이 등이다. 이런 연산은 거의 모든 문제에서 사용되고 있고 수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기호의 사용도 다른 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기본 연산이 아닌 개념을 알아야만 하는 문제는 다른 성취기준을 포함하게 되므로 부득이 판단이 불가능한 문항으로 분류되었다.

다른 과목의 성취기준이 섞여 있어서 판단이 불가능한 문항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두 개 이상인 경우이므로 굳이 성취수준을 분류한다면 당연히 상수준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수능완성> 두 단원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70% 이상의 문항이 상수준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EBS 연계가 수능 평균을 약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70%나 연계된 시험에서 여전히 수학 평균이 50점 근처인 이유는 EBS 연계 문항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집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EBS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보통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도록 강요하는 관계로 문제의 수

준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학 지도 교사들의 의견 중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요하는 문제보다는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수능완성> 시리즈 '기하와 벡터' 교재 47쪽 12번 문제와 그 풀이다.

12 점 $(-\sqrt{2}, -2)$에서 쌍곡선 $x^2-4y^2=4$에 그은 접선이 쌍곡선과 만나는 점 중 제1사분면의 접점을 A, 쌍곡선의 두 초점을 F, F′이라 하자. 삼각형 FAF′의 넓이를 S라 할 때, S^2의 값을 구하시오.

<수능완성, 기하와 벡터> 47쪽 12번 문제

12 쌍곡선 $x^2-4y^2=4$, $\frac{x^2}{4}-y^2=1$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y=mx\pm\sqrt{4m^2-1}$ ····· ㉠

㉠이 점 $(-\sqrt{2}, -2)$를 지나므로

$-2=-\sqrt{2}m\pm\sqrt{4m^2-1}$, $\pm\sqrt{4m^2-1}=\sqrt{2}m-2$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4m^2-1=2m^2-4\sqrt{2}m+4$, $2m^2+4\sqrt{2}m-5=0$

$(\sqrt{2}m+5)(\sqrt{2}m-1)=0$ $\therefore m=-\frac{5}{\sqrt{2}}$ 또는 $m=\frac{1}{\sqrt{2}}$

$m>0$이므로 $m=\frac{1}{\sqrt{2}}$

이것을 ㉠에 대입하면 $y=\frac{1}{\sqrt{2}}x\pm1$

그런데 $y=\frac{1}{\sqrt{2}}x+1$은 점 $(-\sqrt{2}, -2)$를 지나지 않으므로

$y=\frac{1}{\sqrt{2}}x-1$ ····· ㉡

㉡을 $x^2-4y^2=4$에 대입하면

$x^2-4\left(\frac{1}{\sqrt{2}}x-1\right)^2=4$, $x^2-4\sqrt{2}x+8=0$

$(x-2\sqrt{2})^2=0$ $\therefore x=2\sqrt{2}, y=1$

$\therefore$ A$(2\sqrt{2}, 1)$

두 초점은 F$(\sqrt{5}, 0)$, F′$(-\sqrt{5}, 0)$이므로 삼각형 AFF′의 넓이 S는

$\frac{1}{2}\times2\sqrt{5}\times1=\sqrt{5}$ $\therefore S^2=5$

답 5

<수능완성, 기하와 벡터> 47쪽 12번 풀이

풀이 7행을 보면 $2m^2+4\sqrt{2}\,m-5=0$이라는 이차방정식이 나온다. 계수에 무리수가 포함되는 이런 이차방정식은 학생들이 흔하게 보는 이차방정식이 아니다. 더구나 그것을 인수분해를 해야 한다니 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보통의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고민할 것은 수능 시험이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에 없는 문제를 출제해도 되는가의 문제다. 국가 수준에서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개발하는 목적은 이를 학교 교육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학교에서의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활동을 안내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박선화 외, 2011). 수학과 성취기준 성취수준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교사의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의 교육 성취 정도에 대한 판단 및 정부의 교육과정 질 관리 정책의 판단 준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최수일 외, 2012).

논란이 있겠지만 국가에서 관리하고 출제하는 수능시험도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지켜야 한다. 앞의 〈수능완성〉 시리즈 '기하와 벡터'의 절반 문항을 조사·분류한 표에서 다른 과목과 섞여 있어 성취수준을 판단할 수 없는 문항 비율이 이차곡선 단원에서는 50%를 넘으며, 일차변환과 행렬 단원을 포함하더라도 41.46%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하와 벡터' 과목의 성취 정도를 판단하려고 출제한 문제가 실제로는 다른 과목의 성취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 문제의 성취기준은 무엇일까?

16 타원 $\frac{x^2}{9}+\frac{y^2}{4}=1$과 쌍곡선 $\frac{x^2}{k^2}-y^2=1$은 두 초점 F, F′을 공유한다. 이 타원과 쌍곡선의 한 교점을 P, $\angle \mathrm{FPF'}=\theta$라 할 때, $\sin 2\theta=\frac{q}{p}$이다. $p+q$의 값을 구하시오. (단, p, q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성취기준을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중심이 원점인 타원의 방정식에서 초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중심이 원점인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초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며, 타원의 정의와 쌍곡선의 정의를 이해하

며, 코사인법칙을 적용하여 삼각형을 풀 수 있으며,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이해하며, 삼각함수의 배각의 공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절반 정도는 타원과 쌍곡선 두 도형을 알아야 하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고1 수학'에 나오는 삼각함수와 '수학Ⅱ'에 나오는 삼각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만약 '기하와 벡터'를 열심히 공부하여 타원과 쌍곡선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고1 수학'이나 '수학Ⅱ'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학생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과목을 넘어서 성취기준을 섞는다는 것이 얼마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학의 어떤 한 과목 또는 한 개념의 이해 부족이 모든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것은 중복적으로 감점하는 일일 수도 있다.

3)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존재

수능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확대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문제는 곧 교육과정의 확대를 의미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과 창의적인 수업 운영을 위한 배려 정책으로 몇 번에 걸친 교육과정 축소를 단행했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제7차 교육과정 개정시 30%를 경감했다고 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를 경감했다고 교육과정 총론에서 밝혔다.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도 20%를 경감했다고 했다.

그런데 수능에 연계되는 EBS 교재가 교육과정을 확대 해석해서 성취기준을 벗어나는 문제를 포함한다는 것은 곧 교육과정을 위배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행렬의 대칭변환에서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직선 $y=x$에 대한 대칭변환을 다루는 것이 성취기준의 학습 활동의 예로 명시되어 있고, 교육과정 해설서에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능완성〉 시리즈 '기하와 벡터' 교재에서는 직선 $y=-x$에 대한 대칭변환의 행렬을 암기해서 사용하는 문제나 일반 직선인 $y=2x$에 대한 대칭변환을 다루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EBS 수능 연계 교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수를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수능 연계 교재가 교육과정에 이상이 없으며 교육과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나 수험생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직선 $y=x$에 대한 대칭의 네 가지 대칭변환 이외에도 직선 $y=-x$에 대한 대칭변환의 행렬을 암기해야 하고, 심지어는 기울기가 1이 아닌 직선 $y=mx$에 대한 대칭변환으로 일반화한 행렬 $\begin{pmatrix} \frac{1-m^2}{1+m^2} & \frac{2m}{1+m^2} \\ \frac{2m}{1+m^2} & \frac{m^2-1}{1+m^2} \end{pmatrix}$을 암기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수능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특정 교과서에 나왔다는 기준도 타당하지 않다. 교과서에서는 창의성과 사고력 향상 등 다양한 학습을 위해 교육과정을 다소 확대 해석하는 활동이나 독특한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이나 과제는 교과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교과서가 다루는 내용을 시험에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나 수능 시험은 국가 수준에서 출제하는 것이므로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결코 확장 해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4) 연계 시기의 문제

현재 EBS 교재의 연계 대상은 수험생이 고3이 되었을 때 발행한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교재다. 그런데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라면 '수학Ⅰ'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수학Ⅱ'는 2학년 2학기에 이수하게 되며, '적분과 통계'와 '기하와 벡터'는 3학년에서 이수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학Ⅰ'과 '수학Ⅱ'의 이수 시기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수능 연계 교재가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연계를 하는 것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EBS 출판사의 영업 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출판사는 1년 단위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철이 지난 교재를 반납 받게 되고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없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므로 고2에 출판된 교재로 연계를 하게 되면 출판된 책이 시장에 없는 상태에서 수능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교에서 배울 때 수능 연계 교재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며 고3에 가서 밀려서 급하게 공부하는 것도 완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EBS 교재는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기에 맞춰 발행된 책

으로 연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교 수업이나 방과 후 등에서도 EBS 교재를 그때그때 다룰 수 있으므로 고3 수업에서 EBS 교재가 범람하는 현상 또한 줄어들어 공교육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연계 교재 발간 시기의 문제

현재 <수능특강> 발행일은 1월 15일(2014년 기준)이며, <수능완성> 발행일은 6월 15일(2013년 기준)이다. 올해 수능 시험일은 작년보다 1주 늦춘 11월 13일이다. <수능완성> 발행일로부터 수능까지는 5개월이 채 안 된다. 수학B형을 치르는 수험생의 경우 <수능완성> 4권 400쪽 분량의 유형별 교재 학습과 별도의 6회 분의 수능모의평가까지 공부해야 한다. 매일 쉬지 않고 <수능완성>만 공부하기에도 벅차다. 그러므로 발간 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더 바람직한 것은 발간 시기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아예 <수능완성>은 연계교재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수능특강>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연계를 할 수 있다.

6) 같은 과목의 A형과 B형 구성의 문제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모두 '수학 I' 과목만 A형과 B형의 두 가지 형태로 교재를 구성하였다. 두 교재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2014학년도 EBS 수능특강 수학 I' 교재의 1단원 행렬과 그래프의 문항 구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단원명	총 문항 수	공통 문항 수	별도 문항 수	별도 문항 비율(%)
행렬과 그 연산	28	5	23	82.14
역행렬과 일차방정식	37	7	30	81.08
그래프와 행렬	17	4	13	76.47
합 계	82	16	66	80.49

대단원 1개의 문항 구성을 조사한 것이고 대단원마다 집필자가 다르지만 EBS 편집부에서 각 대단원 집필자에게 동일한 비율을 제시했을 것이므로 다른 단원도 이런 비율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A, B형의 공통문항이 20% 정도이며 80% 정도는 다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2014학년도 대입 수능 수학 시험 문제 B형의 '수학Ⅰ' 범위에서 출제된 8문항 중 4문항이 A형과 중복되었으며, 나머지 4문항은 별도 문제였다.

EBS에서 교재를 두 개로 분리한 것은 아마도 A형 수험생을 위한 배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A형이 쉬운 수능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수학Ⅰ'을 한 권만 발행하면 A형을 보는 학생도 B형을 보는 학생과 똑같은 수준의 문항을 학습해야 하고, 실제로는 B형에서 출제되는 어려운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우려되는 점을 생각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학 A형의 시험 과목이 '수학Ⅰ'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인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수학Ⅰ'에서 A형과 B형의 교재 두 권을 사야할 것 같은 분위기다. 물론 출제진의 의견을 들어보면 절대로 A형의 교재에 나온 것을 B형에서 연계시키지 않고, B형의 교재에 나온 것을 A형에서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하며, 이런 안내는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만약 이런 출제 방침을 모르는 수험생의 경우는 두 권을 모두 공부해야 해서 수험 준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B형 교재의 난이도에 대한 우려다. B형이라고 해서 똑같은 '수학Ⅰ'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별도의 난이도로 출제한다는 것은 어렵게 출제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B형의 평균이 낙제 점수인 50점 정도인데도 출제진은 최상위권 변별력을 이유로 난이도를 마냥 높이고 있다.

3. 요약 및 결론

이상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수학 문제의 난이도를 적정화하라. 지난 3월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능 수학 시험의 평균의 적정선은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60점대였다. 40점대 초반에 있는 A형의 평균은 물론 50점 근처에 머물고 있는 B형의 평균을 60점대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하라.

둘째, EBS는 <수능완성>에 끼어 넣은 '실전편' 모의고사를 즉시 삭제해서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 주고 수능 연계 교재를 줄였다는 주장의 진실성을 스스로 밝혀라.

셋째,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교육과정에 위배되거나 교육과정을 확대 해석하는 문제를 당장 삭제하고 교재 정오표에 올려서 수험생들과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주라.

넷째, EBS 교재가 학교 수업을 지배하는 현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EBS 교재 연계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학 교과서 연계 정책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EBS는 수학 교과서 강의도 편성하라.

다섯째, 현재의 연계 정책을 고수하더라도 '수학Ⅰ'과 '수학Ⅱ' 교재는 수험생이 고2 때 출간된 것으로 연계를 하고, 나머지 교재는 고3 때 출간된 것으로 연계를 하도록 하라.

※ 참고문헌

박선화, 남진영, 이봉주. (2011). 고등학교 수학과 선택과목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 2011-3-1.
최수일 외. (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전라남도교육청.

제1논찬

EBS-수능 연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논찬

신삼수(EBS 학교교육기획부 부장)

제2논찬

EBS-수능 연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논찬

이동흔(전국수학교사모임 회장, 숭문고 교사)

제3논찬

EBS-수능 연계 70%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 대한 논찬 :영어 영역 중심으로

권희정(경기 군포 흥진고 영어 교사)

1. EBS-수능 연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2011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시작된 EBS 교재의 70% 연계 출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제시한 교육적 핵심가치에 대한 고려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사회적 합의 없이 오로지 사교육과 지역 간 학력격차 문제에 대응하는 표면적 행위에 초점을 두고 끌어낸 고육지책이라는 의견이 현장 교사들 사이에 분분하다. 소위 백년을 내다봐야하는 국가 교육정책 중의 하나인 EBS-수능 연계에 대해 많은 현장 교사들은 '효율성이라는 초단기적 경제논리와 인터넷 및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IT 기술에 대한 범국가적 맹신을 조합한 미봉책' 일 뿐이라며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 교사 역시 앞서 두 발제 과정에서 적시된 EBS-수능 70% 연계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 즉 EBS 수능 교재의 고3 교과서화 및 이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의 왜곡과 파행, 수험생들에게 더욱 과중해진 학습부담, 그리고 사교육 경감에 실제로 큰 기여를 한다기보다 오히려 관련 사교육 조장의 가능성 등의 비판적인 시각에 매우 동의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EBS-수능 연계가 지난 5년간 공교육의 본질과 공공성 및 각 교육 주체의 자율성과 권리를 크게 침해해 왔고, 오히려 EBS 강의와 관련된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키워 본래의 목적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EBS-수능 연계는 국가 교육과정의 특성 및 방침과 그 어떤 관련성도 찾아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밝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으며,

>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지표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민주시민'이다. 따라서 학교급 및 교과와 상관없이 초·중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일체의 교수·학습 활동은 이를 근거로 설계 및 실행하여 평가로 연결한다는 점에 이견을 가진 교육관계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EBS-수능 70% 연계로 말미암아 스스로 제시한 국가교육 지표, 국가 교육과정의 특성 및 방침과 정확히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제도에 합법의 허울을 부여했다. 간단히 말해 학교에서 혹은 수능방송을 통해 EBS 문제집을 푸는 동안 학생들은 그 어느 시점에서도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창의성을 발현시키며, 주변에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기회와 경험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수능-EBS의 연계 강화의 본 취지는 공교육 제고에 있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공교육을 약화시켜 본래의 의도에 맞지 않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채창균, 2007; 김진영, 2011; 박상규, 2011). 또한 통합적인 사고능력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능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데(김혜란, 2012), 그 이유는 특히 영어 영역에 있어 EBS 교재의 지문이 크게 변형되지 않고 출제하는 원칙에 따라 지문의 내용을 거의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고3 학생들의 획일적인 학습은 결국 수능 이전의 학력고사 시대의 주입식 교육으로 퇴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둘째, 교육부는 공교육의 공공성을 과대 해석한 나머지 학교가 아닌 교육방송사에 EBS 문제집이라는 또 다른 검인정 교과서를 가르치게 하고 수능 출제에 과잉 연계함으로써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수업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고루 제한을 가해왔다. 고3이라도 정규 교육과정에 입각해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과서가 아닌 EBS 교재로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행태에 우회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여 고3 교사들이 본의 아니게 불법을 자행함에 스스럼없도록 면피 혜택을 주었고 이는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의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교과별 차이는 있긴 하나 학생들은 정당한 가격에 구입한 교과서를 제대로 들추어 보지도 못한 채, 연계가 결정된 EBS 교재만 풀기에도 버거운 고3 시기를 EBS 문제 풀이로 점철된 교실과 학원에서 보내기 십상이다. 이에 따라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권 역시 침해당하고 있는 것 역시 자명하다.

EBS-수능 정책의 정당성을 연구한 정순원(2011)은 EBS-수능 연계는 직·간접적으로 교사의 교육 방법과 교재선택권,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 사교육을 강제하는 등의 형태로 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면에서 교사 교육권의 근간인 헌법 제 31조(제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와 초·중등 교육법 제 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셋째,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효과성 여부와 더불어 오히려 EBS 교재와 관련된 사교육 시장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다. 학교에서 EBS 연계 교재를 모두 다뤄줄 수 없는 현실적 여건상 기본 개념과 원리의 이해 정도와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습동기, 인지조절(인지 및 메타인지전략) 등의 학습관련 역량이 부족한 많은 학생들은 유명 사교육업체의 인터넷 강의와 오프라인 학원 강의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기대만큼 EBS 방송 및 인터넷 강의에 전적으로 몰리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우선 EBS 수능 강의가 수준별 혹은 개별화된 교육적 접근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활동이란 본래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 이뤄지는 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게 실현되는 속성이 있기에 화면속의 EBS 교사보다 학원

수강으로 접촉하는 현실의 강사를 통한 자기위안으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학생들의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으로도 진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BS 강의가 고등학생의 교과별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백순근 외(2012)에 따르면 수학에서만 EBS를 수강한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생보다 매월 약 12,956원의 사교육비를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공변인(성별, 지역규모, 월소득, 교과 이해도, 희망교육 수준 등)의 통제 후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수학에서 공변인 통제 전과 동일하게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었으나(월 12,275원), 국어에서는 오히려 11,960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EBS 수능 영어 영역의 수준별 강의와 교재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EBS 강의를 듣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김혜란, 2012), EBS 강의 제공을 통한 사교육 경감 효과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다각적인 검증이 더욱 요구된다.

2. EBS-수능 연계 정책이 고교 영어교육 현장에 미친 비교육적인 사례

일반계고의 영어교사로서 EBS-수능 연계 실시 전후인 2009년-2010년 2년간 고3을 지도한 경험과 여러 동료 영어교사들의 자문을 구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① 고3 영어교과서는 EBS 수능 교재로 대부분 전면 교체

심지어 경기도 K시 H고등학교는 교육과정 편제상 고3 1학기 과정이 분명히 영어Ⅱ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첫날부터 교과서는 전혀 지도하지 않은 채 수능특강 강의에 돌입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5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범위는 '영어Ⅰ, 영어Ⅱ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라고 명시되어 있어 EBS 연계에 따른 학교교육의 파행과 불법의 일상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② 고1, 고2 영어 시간에도 EBS 교재로 교육

경기도의 신도시인 H시의 B고등학교는 고1 때부터 교과서와 EBS 교재(수능 비연계 교재)의 비율을 4:6, 혹은 3:7의 비율로 지도해 왔다. 해당 학교에서 2013년까지 5년간 1,2 학년을 주로 지도했던 K교사에 따르면 EBS-수능 연계 실시 이후로 1,2학년까지도

특정 학기에 아예 EBS 교재로만 수업을 진행한 적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민원이나 불만 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비정상적인 학교교육에 대해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③ 학교 영어교사의 EBS 강사 및 학원 강사 따라잡기

일반계고 교육의 성패가 연말의 유명대학 합격자 비율로 판단되는 한국적 현실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활 및 진로지도, 인성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을 아껴 족집게와 같은 예리함으로 EBS 변형 문제를 만들기 위해 EBS 교재 연구에 용왕매진 하고 있다.

> 24일 일선 학교와 학원가에 따르면 영어 B형 일부 문항이 사설학원 교재와 문제 유형이 같은 것은 물론 보기까지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EBS 교재 연계문항이기 때문에 지문은 같을 수 있지만, 출제 방식까지 같다는 것은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기출문제인지, 시중 교재에 나온 문제인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예컨대 영어 B형 39번 문항은 EBS 교재에는 '빈칸추론'이지만 수능에서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찾기'로 변형됐는데 유형뿐 아니라 해당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제시된 보기 5개 중 4개가 D학원 인터넷 동영상 강의 서비스의 한 영어 강사가 만든 수업자료와 일치했다. '빈칸추론'에서 '틀린 어법 찾기'로 변형된 27번 문항도 해당 교재와 유형 및 보기 5개 중 3개가 같았다. - 연합뉴스, 세계일보, 미디어다음 2013. 11.24

3. EBS-수능 연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이해

① 교사 관점

첫째, EBS 교재가 아니라도 고3 교실에서는 어차피 수능대비 문제집으로 교과서를 대체해 왔던 것이 오랫동안의 관행이었으며, 따라서 문제집을 교체한 것 뿐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게다가 수업시간에 따라잡지 못한 학생들은 EBS 방송을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 전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으며 오히려 매년 2월마다 어느 출판사의 문제집으로 선정할지를 결정해야하는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둘째, 고3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오거나 개인적 성향상 일제식 강의에 익숙한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나 창의적·혁신적·자율적인 교수·학습 활동 설계와 실행 및 평가방식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어진 EBS 교재의 문항을 혼자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강의하는 것에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② 학생 관점

첫째, 막상 고3이 되어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EBS 교재가 연계된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된다. 70%나 연계 된다하니 당연히 출시되는 순서대로 EBS 교재를 구입하여 일단 풀기 시작하면 된다. 문제의 수준이나 질의 문제는 상관없으며 수능 당일까지 내용만 잘 기억되기를 바랄 뿐이다. 게다가 지역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비교적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

둘째, 학교수업에서 EBS 교재의 내용을 모두 다루지 않아도 집에서 EBS 강의나 인강을 들으며 보충할 수 있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교 수업에서 다루는 EBS 교재 진도보다 본인의 진도가 빠른 경우 선생님과의 암묵적 합의에 따라 수업 중에도 나 홀로 공부가 일부 가능하다. 게다가 학원과 유명 온라인 강의에서는 다양한 변형문제를 만들어 제공해주기 때문에 일단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수능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생각에 힘이 난다.

4. 마무리하며...

EBS-수능 연계에 대한 시각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가 확연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교육 주체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 공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EBS-수능 연계의 관련성에 대한 양심적인 고찰의 선행이다. 둘째, 평가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환류효과, 즉 평가가 교육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다. 셋째, 70% 연계라는 표현에 도사린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통계치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율에 현혹되지 말고 표본의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각 영역 당 10문제를 공부했을 때 그로부터 7문제가 출제된다는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0%라는 숫자가 주는 후광과 강력한 마력에 자신도 모르게 무비판적으로 휩쓸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라는 의미이다.

본 교사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대안에 대부분 적극 동의하나 EBS 연계 교재를 2학년 때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이자는 주장에는 다소 입장이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0년간 교육현장에서 체험한 한국적 교육현실의 경향성으로 보아 단언컨대 2학년 시기에 맞추어 제작된 EBS-수능 연계 교재의 발매 즉시 2학년 해당 교과의 교과서 자리를 꿰어 찰 것이며 이는 괴로운 고3 시기를 고2로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비대한 사교육 시장과 엄청난 사교육비는 학력과 학벌에 따른 사회의 차별적 보상과 배금주의가 그 근본적 원인이므로 학력 및 학벌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이윤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로의 전환을 위해 전 국가적 차원의 교육 철학적 고민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롯된 교육 정책의 강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소득격차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교육 당국의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와 실천을 당부하며 논찬을 마친다.

※참고문헌

김진영(2011). 사교육 의존도의 심화와 교육기회 불균등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응용경제학회**, 13(2), 191-239.

김혜란(2012). *EBS 수능 외국어 영역 강의 및 교재에 대한 만족도와 인지 전략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상규(2011). 교육방송 상업용 도서의 수준과 적합성 검토: 언어영역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대상으로. 한국독서학회, 26, 231-264.

백순근 외(2012). EBS 강의가 고등학생의 교과별 사교육비와 영역별 수능성적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4(1), 137-162.

정순원(2011). 헌법상 공교육원칙에 따른 EBS 수능강의 정책의 정당성. **한국교육**, 38(1), 211-230.

채창균(2007). EBS 수능강의 참여 실태와 효과분석. **직업능력개발탐구**, 10(3),25-44.

▮ ‘EBS-수능 연계 70%’ 정책으로 인한 교육현장 영향 평가 토론회

토론회	주제	토론	비고
5/20(화) 오후 7시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발제
		최수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발제
		신삼수(EBS 학교교육기획부 부장)	논찬
		이동흔(전국수학교사모임 회장)	논찬
		권희정(경기 흥진고 교사)	논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공식카페: www.noworry.kr 전화 : 02-797-4044~6 팩스 : 02-797-4484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메일: noworry@noworry.kr